

09 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최순호, 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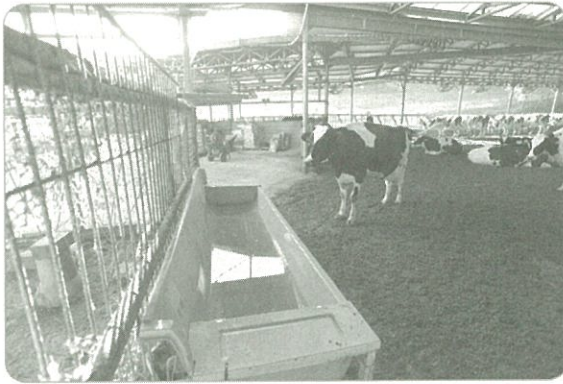


젖소 사양관리

고온기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이 중요

이제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젖소들은 여름 내내 폭염으로 많이 지치고 체력이 떨어져 생산성 저하 등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체별 영양관리에 신경써야한다. 이달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젖소의 건강과 생산성을 평상으로 회복해야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사료급여 수준을 검토하여 건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 고온기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의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 물은 체열을 식혀주고, 젖소의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사료는 ADF(산성세제불용성섬유소)를 17%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후사료량을 높이고, 종실(면실, 대두 등), 보호지방(칼슘염지방산, 프리드지방산 등)을 급여하여 부족하기 쉬운 에너지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또한, 콘글루텐, 맥주박 등의 미분해성 단백질(보호아미노산)의 사료와 비타민 A를 추가로 급여하여 산유량, 번식효율 저하를 방지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수태당 종부횟수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여름철 저조했던 번식활동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서히 체중 증가와 함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적기 발정 발견과 적기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수태당 종부횟수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하고, 분만 전 비타민(A, D, E)과 무기물(셀레늄)을 투여해 무기력증에 의한 후산정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을 회복시키고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유 초기에 조·농 비율을 농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고영양분,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여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빠른 시간 내에 건물섭취량이 최대가 되도록 해준다.

또한 산유능력검정사업을 통해 보유한 개체의 능력을 파악하고 젖소 혈통등록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체형심사 및 교배계획에 의하여 근친교배가 되지 않도록 정액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젖소 개량을 실시함으로써 고능력우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목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축사 내 바닥, 주기적으로 크레졸 소독과 건조 작업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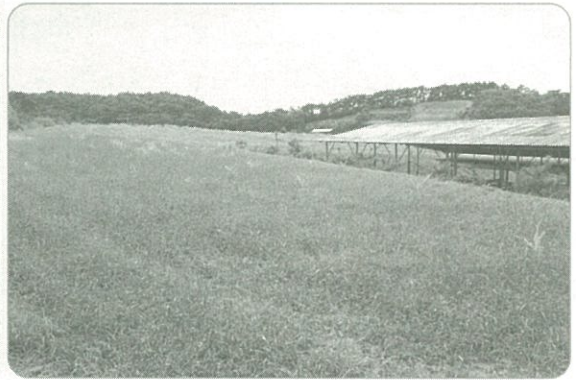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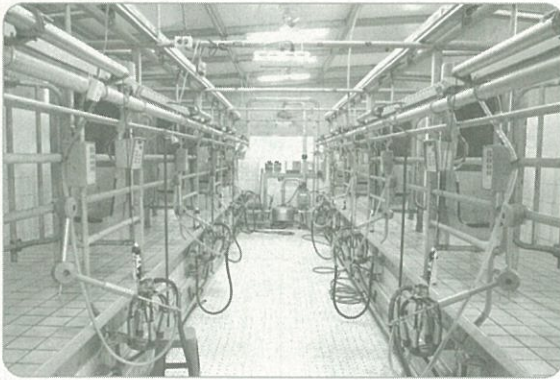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젖소를 개체별로 진단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철 장마기 이후에는 축사바닥의 상태에 따라 발굽병이 만연할 수 있다. 발굽병 중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이상성 피부염이며 그 주요 원인이 축사바닥 환경오염이란 점을 명심하여 축사 내 바닥에 대하여 주기적(1~2주 간격)으로 크레졸 소독과

젖소 번식관리



방역 및 위생관리





건조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발굽장애우가 많은 목장에서는 세족기(액)를 반드시 사용해 주어야 한다. 발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에 의한 과산증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영양균형을 조절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굽병에 걸린 소가 번식효율이 저하되었으며, 또한 발굽병으로 인한 두당 평균 유량감소도 20~50%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기적인 발굽삭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지 및 사료작물

사료작물은 9월 초순경, 월동작물은 9월 중순경에 파종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작물(유채, 연맥)은 9월 초순경, 월동작물(호맥 등)은 9월 중순경에 파종되도록 한다. 벚짐은 농가와외의 사전 계약을 통해 가을철 벼 추수기에 벚짐 확보가 순조롭게 되도록 미리 준비한다. 가을철 목초파종이 늦어지면 어린 목초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아 동사하기 쉬우므로 9월 초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 목초가 충분히 성장한 다음 월동할 수 있도록 한다.

파종시에는 복토와 진압을 철저히 하여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초지가 있는 농가에서는 초지조성 및 보파갱신을 조기에 완료하여 월동에 따른 생존율을 높인다. 목초를 수확하여 급여할 경우 이슬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풀은 되도록 오후에 예취하고 이슬에 젖은 풀은 말려서 급여토록 한다. ☺